

연구원 소식

동아리 지원 사업 추가 공모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회원 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 계획 중 일부가 지원을 철회해 추가로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1. 사업명 : 2022년 회원 동아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3. 사업예산 : 1개 동아리 당 50~100만원 차등지원

※ 사업계획, 동아리 결성 및 활동기간, 활동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4. 신청자격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이 주체가 되어 5인 이상 참여하는 동아리 사업

5. 신청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5월 27일(금)

6.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연구원 전자우편(hangoyeon@hanmail.net)으로 제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기자촌 재개발 지역 내 마을의 역사를 구술하실 수 있으신 회원께서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암흑의 시대를 밝힌 조용한 햇불 - 1981. 5. 27

그는 1959년 전라도 광주에서 구남매 가운데 여덟째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 내내 성당 학생회에 참여해 가톨릭 교리에 대해 공부했고 교리 교육 때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신학대를 가고자했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에 입학한 1978년은 유신독재의 압제가 절정에 달했던 해였다. 대학에는 수많은 사복경찰이 상주했다.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유신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로도 체포될 수 있던 시기였다. 그 역시 유신체제에 강한 염증을 느꼈지만 학생운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수많은 학우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고통을 겪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했고 그는 홀로 괴로워했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그의 고교, 대학 친구였던 이홍철 변호사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그의 책상 앞에 **‘사랑의 사회실현과 진리탐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이기’**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10.26으로 막을 내린 유신독재는 민주화의 봄 앞에 그 잔상마저 녹아버리는가 싶었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민주인사 수백 명과 학생대표 백여 명을 연행한 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공수부대가 도륙한 5월 광주는 그의 고향이었고 그 날 소리 없이 쓰러져간 이들은 그의 이웃이었다. 그가 살았던 광주 집은 금남로 곁이었다.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은 그의 마음에 큰 응어리로 남았다고 비극의 한가운데 선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시민을 폭도로 몰았고 어느 누구도 계엄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거대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자신도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이 한없이 고통스러웠다.

1981년, 5월 2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학생들은 광주항쟁에서 숨진 이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곧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전경이 달려와 시위를 저지했다. 도서관 6층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가 "전두환 물러가라!"를 세 번 외치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경찰은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주변에 최루탄을 난사해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을 놓았다. 그가 투신한 다음날 신문에는 "서울대생 도서관에서 투신 사망"이라는 단신 기사가 실렸을 뿐이었다. 어느 언론도 그의 죽음을 광주와 연결 짓지 못했다. 그가 숨을 놓은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도배한 것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기획한 관제행사인 "국풍 81"이었다.

그러나 그가 투신한 다음날인 5월 28일 도서관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파쇼 타도" "전두환 타도"라는 글이 쓰이고, 2천여 명의 학생이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추가 시위를 우려한 학교 측은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앙도서관을 17일 동안 폐쇄하기도 했다.

1981년 10월 23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3층 난간에서 '반파쇼 민주투쟁 만세'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돌며 시위한 혐의로 학생 5명이 구속되었다. 1981년 11월 25일에는 중앙도서관 5층 난간과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횃불과 메가폰을 활용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었다.

이후 서울대 중앙도서관 창문에는 쇠창살이 세워졌고 이듬해 4월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바라본 도서관 아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가시가 촘촘한 장미 울타리가 만들어졌다. 한동안 군가 "전선을 간다"를 개사한 아래와 같은 노래가 시위 현장에서 불리곤 했다.

“장미꽃 만발한 아크로폴리스 / 쇠창살 둘러친 면학의 도서관
젊은 넋 스러져간 그때 그 자리 / 상처 입은 노승은 말을 잊었나
학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 학우여 보았는가 한 맺힌 눈동자.”

불의한 권력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음에도 누구도 선뜻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는 시대였다. 결국 누군가는 모든 것을 바쳐 이 침묵의 부조리함에 경종을 울려야 했고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에겐 돌맹이도 유인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그의 피로 적셔졌던 대지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던 이들에게 용기라는 양분을 나눠주었고 오늘 우리 역사를 이만큼 밀어오게 만들었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 정의를 온 몸을 다해 쫓았던 용기, 비할 수 없는 자기희생... 한 시대가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에 참으로 많은 목숨들이 필요하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가 받은 세례명은 다두(타대오)였다. 절망과 신념을 잃은 사람들의 수호 성인인 다두가 세례명으로 정해질 때 그가 짊어져야 할 역사의 무게가 정해졌던 것은 아닐까?



1990년 11월 2일 서울대에서 열린 김태훈 추모비 건립식

41년 전 오늘, 목숨을 던져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을 외쳤던 '다두(타대오)' 김태훈의 원(願)은 다 이루어졌을까?